

‘베리타스’ 신은정 감독, 뉴욕국제독립영화제 다큐 베스트 감독상

‘지성의 상징’ 하버드대학 裏面 탐욕의 옹호자 역할 비꼬았다

광주 출신 여성 다큐 감독 신은정(40) 씨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가장 ‘미국적’인 소재로 지난 5월, 첫 작품 ‘베리타스-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을 완성했다.

영화 제목 ‘베리타스’는 하버드를 나타내는 문장(紋章), 라틴어로 ‘진리, 진실’을 뜻한다. 포스터부터가 도발적이다. VERITAS의 ‘S’자에 달러표시를 그었다. 신씨는 ‘지성의 상징’으로 통하는 하버드 대학이 미국 주류사회의 지배논리를 생산하면서 실은 탐욕의 옹호자가 되고있는 현실을 비꼬았다.

신씨가 최근 막을 내린 뉴욕국제독립영화제(NYIFF) 다큐 부문 베스트 감독상을 수상하는 경사를 맞았다. 1993년 시작된 뉴욕국제독립영화제는 인디영화의 산실로 올해는 영국 등 25개국 200여편이 상영됐다.

“작품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박수가 몇

내년 캐나다·보스턴 등서 상영

한글·영문판 책 출간 작업 중

차례 나오고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않아 극석에서 관객과의 대화가 이뤄지기도 했어요. 한국 관객들은 하버드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미국 관객들은 진작부터 하버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왔었다며 다들 공감하더라구요. 아마도 한국인들이 서울대 중심주의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을 미국인들은 하버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같더군요.”

전남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방송작가로, 광주인권영화제 기획자로 활동하던 신씨는 광주민중항쟁을 연구하기 위해 광주 5·18 연구소에 머물던 조지 카치아 피카스(웬트워스 공과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와 결혼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주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었다.

‘베리타스’는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등 20여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하버드 대학의 이면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첫 작업이고 초기 자료조사나 구성작



‘베리타스’가 상영된 뉴욕국제독립영화제에서 포즈를 취한 신은정 감독.



‘베리타스’ 제작 과정에서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와 인터뷰하고 있는 신은정 감독.

업을 혼자 하다 보니 디테일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래도 첫 작업으로 영화제 상영도 하고 상까지 받게 되니 고생한 보람을 느껴요. 타이밍도 좋았던 것 같아요. 월가 점거농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버드의 신자유주의 경영방식을 비판한 제 작품의 메시지가 정확해졌죠. 또 지난 11월 하버드 학생들이 1%에 봉사하는 하버드를 비판하며 하버드 야드를 점거한 사건도 있어 시점이 좋았죠.”

신씨는 “이 상은 어려운 속에서도 사회의 부조리를 영상에 담고자 노력하는 모든 독립영화인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 다”며 후반작업을 도와준 최성욱 감독과 녹음시설 등을 지원해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도 고마움을 전했다.

‘베리타스’ 한국어판은 5·18민중항쟁 31주년을 기념해 광주·제주·서울에서 상영됐었고 지난 9월에는 서울 변방연극제에 초대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 관객들을 만났다. 이번 뉴욕 상영전에는 다큐에 출연했던 인터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스턴에서 세차례 상영회가 열렸고 내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극장에서 정식 상영된다. 또 하버드와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영회도 추진중이다.

신씨는 다큐를 본 출판사의 제안으로 내년 상반기 출판용 목표로 ‘베리타스’를 책으로 펴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영문판 ‘Veritas-Everybody loves Harvard’ 출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보현 화백, 65년 작품의 모든 것

조선대미술관, 그림 390점 기증 뜻 기려 화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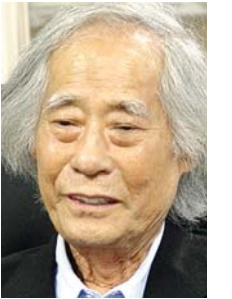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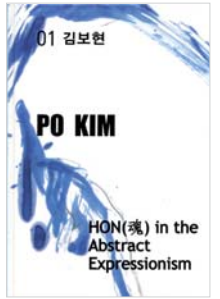
조선대 첫 교수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중인 원로화가 김보현(94) 화백의 작품 세계를 담은 화집이 발간됐다.

조선대미술관은 자신과 아내 실비아 올드의 작품 390여점을 기증한 김 화백의 뜻을 기려 ‘김보현 화집’(전 3권)을 냈다. 이 화집에는 지난 65년 동안 김 화백이 그린 모든 그림을 담았다.

경남 창원이 고향인 김 화백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마

친 후 동경에 유학, 명치대학 법과와 태평양미술학교를 동시에 다녔다. 여순사건 때 학생들과 야외스케치를 나갔다가 좌익혐의로 몰려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은 뒤, 지난 1955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됐다. 전후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대표적 전시였던 ‘미국 미술 50년전’(1955년)에 포함됐을 정도로 일찌감치 뉴욕 화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9월 김 화백과 그의



아내 실비아 올드 여사의 화업을 기리는 ‘김보현·실비아 올드 미술관’도 개관했다. 문의 062-230-782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으로 전하는 따뜻한 희망

‘홀리클럽’ 16~20일 우제길미술관서 전시회

연말을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훈훈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를 준비한 이들은 지역 기독교 예술인들의 모임인 ‘광주문화예술인 홀리클럽’(회장 변지유) 회원들로 16~20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가족 이야기’ 시리즈를 전시하며 한희원씨는 눈 오는 겨울밤의 풍경을 두터운 질감으로 표현한 ‘설야’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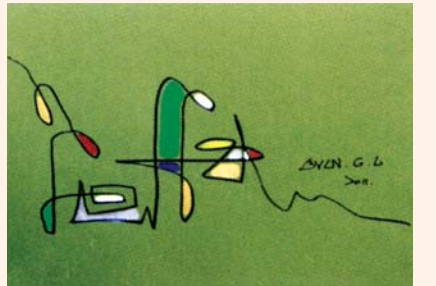
또 우제길·최재봉·오영란·변재현·허

정·김미선씨가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전시하며 사진작가 신장웅·이병호씨는 무등산과 흥도의 풍광을 담은 사진을 선보인다.

그밖에 의상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그림 그리는 ‘꿈’을 간직해온 패션디자이너 변지유씨가 ‘Composition’을 내놓았으며 김양권 전 헌법재판관도 작품을 찬출했다.

전시작들은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며 수익금은 조손 가정 청소년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062-224-66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변지유 작 'composition'



변재현 작 '솔바람'

신창동유적서 삼국시대 집터 10기 발굴

저습지유적인 광주 신창동유적(사적 375호)에서 삼국시대 집터 10기가 발굴됐다. 또 이들 집터에서는 아궁이를, 타날문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숯돌, 방주차 등도 출토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14일 “조사 결과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1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원형수혈 6기와 4세기에서 5세기에 조성된 삼국시대의 집터 등 모두 10기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신창동 반월마을의 복서편 구릉의 남사면 일대에서 삼국시대 주거지가 밀집 분포돼 있음을 확인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집터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부터 고려시대 이후까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그동안 많이 발굴되지 않았던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떠낸 도기인



주조철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63년 용관묘 조사를 시작으로 처음 알려진 신창동유적은 1992년 발굴 조사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저습지유적이 확인됐다.

박물관은 15일 오후 3시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연다. 문의 062-570-70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예협 송년음악회

19일 서구문화센터

매달 한차례씩 ‘해설이 있는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해온 (사)문화예술협회가 12월 송년음악회를 준비했다.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산타클로스, 루돌프사슴과 바람났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부 무대는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로 꾸며지며 2부에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통기타 가수 주권기씨가 무대를 장식한다. 문의 062-384-2033, www.art-gj.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 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 이상)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 약, 흥 삼 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성역

광송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한약파이프

세우리병원

농협 653-12-003100 - 예금주 박주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